

무교병과 무교절

(레위기 23장)

11월 05일

무교병 (Unleavened Bread) 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 즉 효모인 이스트를 넣지 않고 구운 등글고 얇은 떡 (빵) 을 말한다. 반대로 숙성이 필요하여 누룩을 넣고 만든 것을 ‘유교병’이라고 부른다. 출애굽기 12:15 에 무교절의 규례가 잘 나와있다.

(출 12:15) “너희는 이레 동안,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한다. 그 첫날에 너희는 집에서 누룩을 말끔히 치워라. 첫날부터 이렛날까지 누룩을 넣은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이스라엘이 애굽 (이집트) 에서 나오던 날 (노예 해방의 날) 에, 그들은 급히 애굽을 떠나기 위해서 밀가루를 발효시킬 만한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반죽으로 ‘무교병’을 만들어 먹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유대인들이 매년 기념하는 ‘무교절’이 되었고, ‘유월절’ 이 후 일주일 동안 지켜지는 유대인들의 가장 큰 절기 행사이다. 유대인들은 이 축제 동안, 첫날부터 마지막날까지 출 애굽 (이집트) 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무교병을 먹는다. 누룩 (이스트) 을 넣지 않고 급히 만든 무교병은 맛이 없는 빵이다.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종종 ‘무교병’을 먹는 일들이 등장한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낯선 사람을 대접할 때 급히 ‘무교병’을 구워 대접했으며,

(창 19:3) 그러나 롯이 간절히 권하므로, 마침내 그들이 롯을 따라서 집으로 들어갔다. 롯이 그들에게,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상을 차려 주니, 그들은 롯이 차려 준 것을 먹었다.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이 천사를 대접할 때에도 무교병을 대접했고,

(삿 6:19-22) 기드온은 즉시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로 요리를 만들고, 밀가루 한 에바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도 만들고,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국물은 그릇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로 가지고 가서 천사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을 그 위에 부어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였더니, 주님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에 댔다. 그러자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살라 버렸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천사는 그 앞에서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다. 기드온은 그가 주님의 천사라는 것을 알고, 떨면서 말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주님의 천사를 대면하여 뵈었습니다."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겁에 질린 사울왕이 여호와께 기도하지만 여호와의 응답이 없으시자, 사울왕은 죽은 사무엘을 부르려 엔들의 신 접한 여인을 찾아간다. 그 때 엔들의 신접한 여인이 사울 왕에게 차려준 빵도, 누룩없는 빵 (무교병) 이었다.

(삼상 28:24) 그 여인에게는 집에서 키운 살진 송아지가 한 마리 있었는데, 서둘러서 그것을 잡고, 밀가루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이러한 기록을 보면 유대인들은 뜻하지 않게 손님이 찾아 온 경우에 빵을 발효시킬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않고 밀가루를 반죽하여 그대로 구워서 대접했다. 애굽을 탈출할 때 역시, 그들이 바로왕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급히 애굽에서 나가야 했기 때문에 무교병을 만들어 먹었다.

지금도 베두인들은 누룩을 넣지 않고 밀가루와 물을 반죽하여 만든 납적한 빵을 먹고 있다.

:: 베두인 족 - 옛날부터 중동의 사막에서 유목생활을 하는 아랍인이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에 (또는 무교절 - 무교병을 먹는다하여 무교절이라 부른다),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자신들을 종살이 하던 애굽 (이집트) 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 유월절(逾越節) (한자로 넘을 ‘유’, 넘을 ‘월’이란 뜻; 6월 달에 있는 절기가 아님) - 이집트에 있을 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죽음의 재앙’이 그냥 ‘넘어가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

:: 무교절 - 유월절 다음 날 부터 이어져서 일주일 동안 맛 없는 빵 ‘무교병’을 먹으며, 애굽 (이집트) 의 종살이에서 해방 시켜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를 ‘무교절’이라 부른다.

::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붙어 있는 절기라서,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위에 설명한 대로 두 절기가 같은 차이점은 분명히 있다.